명상으로 국민 치유…감동 전하는 新 포교


10월 5일 취임법회에서 대중들의 축하 인사에 밝은 미소로 화답하는 진우 스님.

그 시간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 기대가 담긴 고견들을 들었고 이를 갈무리해 앞으로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시간이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한국불교가 심각한 위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생각하고 계신 대안이 있다면.

A 시절인연으로 종단 여러 소임을 맡으면서 한국불교가 직면한 여러 상황들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원장 소임 당시 출가자 감소 문제의 민낯을 고스란히 직면했습니다. 출가자 감소는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탈종교화 흐름 속에서 불교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로 인한 종교의 역할 부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불자인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단, 그리고 한국불교의 최대 현안인 출가자 감소는 그야말로 수많은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산물이지요. 종교의 위기 뿐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바이러스 창궐, 각종 사회갈등과 분쟁, 인류가 생존하는 모든 곳에서 절박한 시대적 현안이 도사리고 있으며 중생들의 고통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1700년 유구한 역사를 중생의 고통을 보듬으며 희로애락을 함께한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왜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는 어필하지 못하는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정신적인 가치가 외면 받는 시대에서, 우리 불교야말로 현대인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해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작은 불연이 쌓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 본연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사부대중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부대중이 함께한다면 불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 본래의 진면목을 드러낸 가운데, 보다 쉽고, 가깝고, 친근한 불교로 사부대중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이 곧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일궈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Q 소통, 포교, 교구 등 핵심 종무기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취임 일주일 만에 보여주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각각의 기조가 종단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A 모두가 소통의 대상이며 교구활성화의 주인공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전하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소통 · 교구 · 포교를 모든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종단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교구본사의 역할과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며, 지혜로운 포교를 통해 사회의 유익함이 더욱 증장된다면 불교가 나아가는 길은 더없이 크고 넓어질 것입니다.

Q 취임 전 이미 권역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만나 릴레이 간담회를 여셨습니다. 종단과 교구본사와의 관계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신지요.

A 교구는 한국불교의 중추입니다. 종단의 각종 행정과 수행이 이미 교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임사에 밝힌 바와 같이 교구별 특성화 전략을 종단과 교구가 함께 세우고 교구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포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종합불교센터 건립과 같은 지역사회와 밀착한 대사회 사업은 교구를 중심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교구본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Q 취임 이후 첫 공식 외부일정이 미래세대와의 간담회였습니다. 젊은 세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젊은 세대 포교에 대한 생각과 전략이 궁금합니다.

A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포교전략의 해답은 젊은 세대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출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공식일정을 청년세대와의 만남으로 시작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같이 할머니, 혹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사찰을 찾았던 기억만으로 불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래전부터 불교신자들의 고령화, 젊은 불자들의 부재가 한국불교의 고민이 되어왔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은 빠르게 변화해 왔고 또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불교 포교방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 위기 극복의 동력 필요
주어진 소임에 공심으로 임할 것
37대 집행부에 관심 · 경책 당부

기성세대들이 고민하고 기획하는 포교전략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그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요즘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젊은 세대를 넘어,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감동을 주는 불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만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Q 취임 첫 주말, 상월선원 삼보순례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첫 대중법문을 하셨고, 중앙종무기관 기조강연에서는 인도순례 등 상월선원 행보에 종단 차원서 결합하겠다는 뜻도 밝히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인지, 또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종교인구와 불자의 감소, 미래세대에 다가가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포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월선원 결사는 순례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불교의 모범을 만들어 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경전의 문구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현대의 언어로 바꾸어 전달해야 하며, 국민들께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과 명상, 걷기 순례 등으로 국민과 함께 세상의 벗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도 순례 역시 부처님 성지에서 종단의 주요 스님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우리나라와 인도 정부 간에도 중요한 문화교류행사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종단 차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월순례단과 함께 논의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Q 취임 후 여러 법문과 예방자리에서 명상힐링센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개괄적인 계획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A 명상힐링센터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의 거점도량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불교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전법과 포교방식은 감동을 주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불자라고 해도 불교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조차 어렵죠.

그에 반해 명상은 직관적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불교의 본질이 담겨있으면서, 스스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불교의 정신적인 힘이야 말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국민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명상에 담긴 불교의 본질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명상힐링센터는 권역별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건립되어, 누구나 쉽고 편하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종단 차원에서 불교의 본질을 담아낸 질 높은 명상 매뉴얼도 마련해야 하겠지요. 우울증, 자살충동, 스트레스 등 현대인이 직면한 고질적 문제들이 명상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전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근본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곧 새로운 포교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바꾸고 사회적 화합과 안정을 이끄는 해법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직 마음의 종교 불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명상힐링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Q 임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종책 과제는 무엇인지요.

A 우선적으로는 열암곡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셔서 불교 전통문화의 가치를 세상에 다시 빛나게 할 계획입니다. 천년을 일으켜 천년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중점적으로는 대중들이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명상 수행법을 보급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의 명상힐링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종단차원의 조사 연구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명상수행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물적으로는 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 정신 복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갖추는 기반을 닦을 것입니다.

Q 4년의 총무원장 임기가 지날 때 종단 안팎으로 어떤 총무원장으로 평가받고 싶으신지요.

A 한국불교의 위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위기 속에서 한국불교 혁신과 중흥이라는 작은 물꼬를 트고 한국불교 역사의 물길을 조금이나마 바꾼 총무원장으로 평가 받고 싶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종도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변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종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부족한 소납이 조계종 37대 총무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은, 바로 종단 안정과 화합을 토대로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수많은 원력과 기대감이 모인 결실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 받는 우리 사회에 종교계가 화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긍심도 느낍니다. 하심(下心)으로 끝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주어진 소임에 공심으로 임하여, 한국불교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국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대 집행부가 나아가는 길에 많은 관심과 조언, 애정 어린 경책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아름답고 편안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 덕 사

솔바람 커피향 /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주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